

오다니 성터

1573년에 발생한 오다니 성 전투와 그 후의 아자이 가문 축출은 도요토미 히데요시(1537~1598)가 사실상 일본 전국의 통치자로 부상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.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젊은 장수로서 일본 지역 대부분을 통일한 장군인 오다 노부나가(1534~1582)의 휘하에 들어가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. 오다니 성은 두 산의 산등성이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의 상류에 지어져 난공불락으로 불렸습니다. 성하 도시는 공격을 막도록 설계되었으며 바로 공격하기 힘들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소수의 병력으로 산에 몰래 올라가주인 아자이 나가마사(1545~1573)를 포위하고 급습하고 나서야 아자이 가문은 노부나가 군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. 패배를 마주한 아자이 나가마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자신의 세 딸 차차(1569~1615), 하쓰(1570~1633), 고(1573~1626)를 부탁하고 자결합니다. 이들 세 자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도쿠가와 막부(1603~1867)의 등장으로 인한 격변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

오다니 성은 현재 돌담 잔해만 남아 있으며 산 정상까지 다양한 등산로를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산 정상에서는 나가하마 지역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맑은 날에는 비와코 호수의 신성한 섬인 지쿠부시마 섬도 볼 수 있습니다.